

Evaluation of Atopy Dermatitis Information on the Internet in Korea

Min-Jun Seo¹, Jin-Han Park^{2*}

¹College of Pharmacy, Wonkwang University, Iksan, Jeonbuk 570-749, Korea; ²*Department of Medicinal herb development, Gyeongju University, Gyeongbuk 780-712, Korea

ABSTRACT

The internet is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of modern people in the 21st Century. Exchanging information with others over the internet in any place through is possible nowadays and such exchanging information has been developed at rapid speed also in the areas of medical care. The internet is an important and rapidly-evolving source of health-related information, and many patients with atopy dermatitis attempt to find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information available in atopy dermatitis on the internet in Korea.

We chose three portal sites and two network communities to analyze the information in which the topic of 'atopy' could be found. Among the 2,024 web sites and 5,613 network communities, 98.2% of the web sites and 71.7% of the communities were related products or service advertisements, and some of them provided incorrect or exaggerated information. There were only 42 web sites and 75 available communities with genuine information, and most of these also presented unattested treatment methods, including alternative therapies.

It is quite understandable that patients with atopy dermatitis want to seek information related to their disease and the internet has the potential to be a useful source of information. However, there are no regulations to control the accuracy and quality of information on the internet. We should take an active role in identifying the accuracy and evaluating the quality.

Key words : Atopy Dermatitis, Internet, Network Community

서 론

1993년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이 개발된 이래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하게 되었고,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Shin HJ et al., 2000) 이러한 변화는 의학 및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며,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Correspondence: Park Jin-Han, Department of Medicinal Herb Development, Gyeongju University, San 42-1 Hyohyeon-dong, Gyeongju, 780-712, Korea. Tel: +82-54-770-5391; E-mail: jinhan@gju.ac.kr

한편 아토피피부염은 유·소아기에 시작하여 성인에 이르기까지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습진 진환으로, 이러한 만성 경과로 인해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은 사진의 질환에 대한 원인 및 치료 방법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어 스스로에게 적용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그 중에서 인터넷은 누구나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막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원천이 될 뿐만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상의 정보는 전문가 이외에도 흥미와 관심은 있지만 비전문가인 사람들이나 상업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도 제공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과장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Yoo JH et al.,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이 많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검색을 통해 국내 인터넷상에서 아토피피부염에 관련된 정보가 어떠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지 알아보았고, 또한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이 인터넷 동호회의 규모와 성격, 다루고 있는 정보의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8년 4월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포털사이트 중 네이버(www.naver.com), 다음(www.daum.net), 야후(kr.yahoo.com)에서 검색어 '아토피'로 검색된 웹사이트와 대표적인 네트워크 커뮤니티인 다음 카페(cafe.daum.net)와 네이버 카페(cafe.naver.com)의 동호회에서 검색어 '아토피'로 검색된 동호회를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된 웹사이트와 동호회 중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아토피와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였다. 포털 사이트로 검색된 웹사이트는 그 목적과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고, 동호회는 운영 주체와 대상에 따라 분류하였다.

결과

1. 검색 엔진에 등록된 아토피피부염 관련 웹사이트

각 검색 엔진에 등록된 아토피피부염 관련 웹사이트는 네이버가 851개, 다음이 691개 야후가 482개였다.

Table 1. Numbers of atopic dermatitis web sites registered by portal sites

Portal Site	Number
Naver	851
Daum	691
Yahoo	482

2. 웹사이트의 목적과 내용에 따른 분류

2,024개의 웹사이트를 순수한 정보제공을 위한 웹사이트와 홍보 혹은 광고의 목적을 가진 웹사이트로 분류하였을 때, 30개(1.5%)의 웹사이트에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 경험 혹은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아토피피부염의 원인, 증상, 치료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658개(32.5%)의 웹사이트는 병·의원의 홍보용이거나 질환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용이었으며, 나머지 8개(0.4%)의 웹사이트는 아토피피부염과 관련된 일종의 포털사이트로서 질환에 대한 정보, 환자나 보호자들의 체험담, 다양한 치료법들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스폰서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한의사의 상담과 여러 제품의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병·의원의 홍보용 웹사이트는 양방/한방 병·의원이 각각 195개(29.6%), 463개(70.4%)로 나타났고, 양방 병·의원의 전문 과목은 피부과(138개), 소아과(47개), (피부)비뇨기과(4개), 내과(3개), 가정의학과(1개) 마취통증의학과(1개), 성형외과(1개)였다.

Table 2. Numbers of clinic web sites according to the specialty

Speciality	Numbers of clinic web sites
Oriental Clinic	463 (70.4%)
Dermatology	138 (20.9%)
Pediatrics	47 (7.1%)
Urology	4 (0.6%)
Internal Medicine	3 (0.5%)
Others	3 (0.5%)
Total	658 (100%)

제품에 대한 광고용 웹사이트는 1,330개(65.7%)로 가장 많은 수를 보였고, 유아/미용/건강 제품에 함께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위한 로션/크림/화장품/오일/비누 등을 판매하는 경우(1,079개), 광촉매 코팅 시공/집진드기 퇴치 등 주을 판매하는 경우(152개) 등이 있었으며, 아토피피부염과 관련된 전문화된 쇼핑몰 72개가 있었다.

아토피피부염 관련 포털사이트는 총 27개 중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둔 부모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8개, 제약회사와 같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10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4개였으며, 마지막 5곳에서는 한의사 혹은 피부과, 소아과 의사와의 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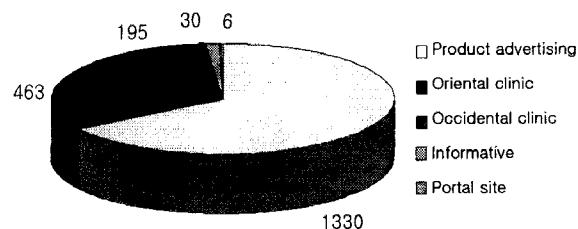


Fig 1. Web sites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content (n=2,024)

3. 아토피와 관련된 인터넷 동호회

검색어 ‘아토피’로 검색된 총 동호회의 수는 다음 4,584개, 네이버 1,029였다.

Table 2. Numbers of atopic dermatitis network community

Network community	Number
Daum cafe	4,584
Naver cafe	1,029

4. 인터넷 동호회의 운영 주체와 주요 대상에 따른 분류

다음과 네이버의 동호회 5,613개를 운영 주체와 주요 대상에 따라 순수 아토피피부염 동호회, 의료기관 관련 동호회, 판매 제품이나 민간요법에 대한 홍보성 동호회, 피부미용이나 육아에 관련된 동호회로 구분하였다. 이 중 순수한 아토피피부염 환자/보호자들의 동호회는 730개(13.0%)가 있었으나 의료기관의 홍보용 동호회 112개(2.0%)였고, 아토피피부염 관련제품이나 민간요법에 관련된 홍보성 동호회는 각각 3,233개(57.6%)였으며, 피부 미용이나 육아를 위한 동호회로 그 주요 대상이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아닌 경우는 758개(13.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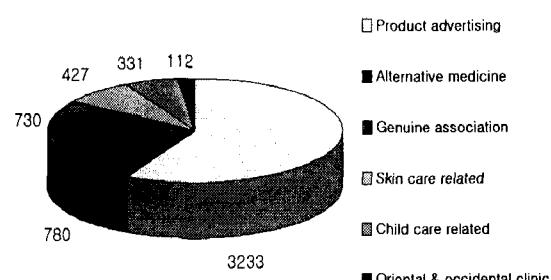


Fig 2. Network community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administrator and subject (n=5,613)

고찰

초기의 인터넷은 일부 학자나 전문인들 사이에서 소규모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그 이용량이 증가하여 이제는 일반인들에게도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았다. 게다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면서 건강 관련 웹사이트는 그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단순한 의료 정보와 건강 상식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특정 질병관련 동호회나 상담, 각종 의료 관련 상품의 판매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²⁾. 하지만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면, 정보의 질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인터넷의 특성상 그에 비례하여 잘못된 정보의 양도 많아진다고 할 수 있겠다.(Kim SU. 2002)

아토피피부염과 관련된 웹사이트는 병·의원 홍보용이나 질환에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용으로 제작된 것이 절대적으로 많았다.(65.7%). 이 중에서 병·의원의 웹사이트는 대부분 질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해당 병·의원에서 진료 가능한 중요 질환으로 아토피피부염을 언급하고 있는 정도였지만 463개의 한의원 웹사이트에서는 해당 한의원이 아토피피부염 전문임을 표방하고 있었고, 그 중 일부에서 아토피피부염이 음(陰)이 부족해서, 혹은 열이 많아서 발생하는 것이며 4개월간의 한약 복용을 통해 95%가 완치 혹은 호전된다고 설명하거나(www.kanganmomh.co.kr), 해독제를 이용하여 인체의 기혈순환을 원활히 함으로써 체내와 피부에 침착되어 있는 독성을 신속하게 배출시키고 중화시킨 후 한약을 복용하면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www.keydoctor.co.kr)

아토피피부염 관련 포털사이트와 순수한 아토피피부염 환자/보호자들의 동호회를 비교해 보았을 때, 포털사이트가 특정 제품의 판매와 같은 사업적인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두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토피피부염 환자들 중에서 대체의학을 선택하게 되는 경위 중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경우(34.3%)가 주위 친지나 친구의 권유에 의한 경우(41.5%)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중매체 중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63.0%로 나타났다.(Chin HW et al., 2005) 이들의 연구에서 '인터넷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대부분의 '인터넷 정보'는 포털사이트나 순수한 목적의 동호회를 통해서 얻어지

는 것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아토피피부염과 관련되어 인터넷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 중 많은 부분이 비전문가나 상업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었고, 이러한 정보들은 출판물과는 달리 상호심사제도와 같은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이므로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있다. 잘못된 의료 정보가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제공될 경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찾은 정보가 유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을 조장할 수도 있다.(Kim YT et al., 2002) 특히 아토피피부염에서 민간요법의 이용 빈도는 다른 피부 질환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순수 아토피피부염 동호회 총 730개 중 657개의 동호회에서 민간요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개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특정 제품을 사용해서 좋은 효과를 보았으니 꼭 사용하기를 권유한다는 교묘한 홍보성의 내용 또한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줄이고자 인터넷에 있는 의료 정보의 질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들이 제시되었고, 주요 질적 평가기준으로는 HON code(hon.ch.HONcode), HITI(hitiwed.mitretek.org), DISCERN instrument (www.discern.org.uk), MedCERTAIN(www.jmir.org) 등이 있다. 이 중 HON(Health on the Net) code는 권위성(authority),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개인 의료기밀(confidentiality), 정보출처(attribution), 정보정당성(justifiability), 저자의 투명성(transparency of author-ship), 후원의 투명성(transparency of sponsorship), 광고의 정직성 및 편집규정(honesty in advertising & editorial policy)의 8개 지침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준수하는 웹사이트에는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방법이며, HITI(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Institute)는 신뢰도(credibility), 내용(content), 목적(disclosure), 링크(links), 디자인(desing), 상호성

(interactivity), 경고(caveats)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두고 점수화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평가 기준들은 정보제공자에게는 웹사이트의 제작 지침을 제시하면서 정보 사용자들에게는 의료 정보의 질을 평가하고 올바른 웹사이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Chang MC et al., 2002)

이렇게 적절하게 평가된 정보가 인터넷에서 제공된다면, 인터넷은 환자들의 교육에 좋은 매체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스스로의 질병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치료 방법의 선택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강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보다 좋은 치료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인들은 환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알아오는 새로운 정보들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을 환자와 함께 분석해 보면 정보의 적절성과 유용성을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웹사이트의 정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환자들에게 이해시키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또한 앞서 언급한 의료 정보의 질 평가 기준처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평가 기준을 세우는 데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되어 인터넷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 중 많은 부분이 비전문가이거나 상업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었고, 이러한 정보들은 출판물과 달리 상호심사제도와 같은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있다. 잘못된 의료 정보가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제공될 경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찾은 정보가 유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환자들의 불신을 조장할 수도 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에서 민간요법의 이용빈도는 다른 피부질환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 따르

면 현재 활동 중인 순수 아토피 피부염 동호회 중 90%가 민간요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개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특정제품을 사용해서 좋은 효과를 보았으니 꼭 사용하기를 권유한다는 교묘한 홍보성의 내용 또한 많았다.

적절하게 평가된 정보가 인터넷에서 제공된다면 인터넷은 환자들의 교육에 좋은 매체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스스로 질병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치료방법의 선택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건강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보다 좋은 치료효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환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알아오는 새로운 정보들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을 환자와 함께 분석해보며 정보의 적절성과 유용성을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웹사이트의 정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환자들에게 이해시키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의료정보의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Chang MC, Kim CD, Roh HR, Chae GB, Choi WJ. (2002) Analysis of surgical websites in Korea. *J Korean Surg Soc.* 64, 1-5
- Chin HW, Jang HS, Jang BS, Jo JH, Kim MB, Oh CK et al. (2005) A study on utilization of alternative medicine for patients with atopic dermatitis. *Korean J Dermatol.* 43, 903-911
- Kim SU. (2002) Internet health information. *J Korean Acad Fam Med.* 23, 281-291
- Kim YT, Kim SH, Kim DK. (2002) Evaluation of colposcopy information on the intrnet. *Korean J Gynecol Oncol.* 13, 66-73
- Shin HJ, Yoon SM Oh SY, Oh JK. (2000)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tatus of the medical

- internet sites in Korea. *J Korean Acad Fam Med.* 21, 792-800
- Yoo JH, Sohn AR. (2004) Evaluation of obesity health information internet sites in Korea. *Korea Sport Research.* 16, 249-256
- Available at: <http://hon.ch.HONcode>
- Available at: <http://hitiwed.mitretek.org/docs/criteria.html>
- Available at: <http://www.discern.org.uk>
- Available at: <http://www.jmir.org/2000/suppl2/el>
- Available at: <http://www.kanganmomh.co.kr>
- Available at: <http://www.keydoctor.co.kr>